

지역 경제계, 프랑스와 교류 확대 추진

전주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주한프랑스대사관, 3자 업무제휴 양해각서 협약 체결

전주상공회의소와 한불상공회의소가 양 지역 경제계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15일 전주상의 4층 회의실에서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과 데이비드 피에르 잘리몽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피아양 폐는 주한 프랑스대사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3자 업무제휴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했다.

한불상공회의소는 이미 푸드플러스, 새만금개발청과 여러해에 걸쳐 프랑스 투자기업 유치사업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 로알 캐닌 프랑스 대기업이 전북에 투자를 한 바 있으며 나아가 양 지역간 민간교류 등 국제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간 이해증진과 신뢰구축으로 경제단체 차원의 공

감대가 형성되어 상공인들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

이번 업무제휴는 양국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무역, 투자, 기술교류 등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앞으로 양 상공회의소간의 사절단 및 상공인에 대해 상담, 거래알선, 간담회, 산업시찰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 연수단이 남프랑스를 방문해 첨단산업과 농업, 문화, 관광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북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양 지역의 우호증진과 식품·문화·관광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주상공회의소와 한불상공회의소가 양 지역 경제계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데이비드 피에르 잘리몽 한불상공회의 회장도 이번 계기로 "양국의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중국 심천하이테크 페어에 참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중국의 실리콘벨리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규모의 '2017 중국 심천하이테크 페어(CHINA HI-TECH FAIR 2017)'에 5개 기업 ((주)그린팩스, (주)케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 (주)세논, 솔라시도코리아(주), (주)후브)를 지원하여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심천 하이테크페어는 중국의 실리콘벨리라 불리는 심천에서 열리며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최대 규모의 하이테크 산업 박람회이다.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심천컨벤션센터(Shenzen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리며, 3000여곳에 달하는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전북 소재 5개사는 공동관을 조성하여 참가하며 농업기계 사전 고장 진단 시스템, 공기청정기, 농산물 절도 예방 시스템, 고효율 솔라패널,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의 품목으로 국내 최첨단 기술력을 중국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전시회 참가로 '개방형 농생명 SW 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동관 지원을 통해 현지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매칭, 미디어 홍보 등을 클러스터 내 SW/IT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참가 기업의 마케팅 경쟁력 및 수출 성과 제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는 전시 기간 중 중국의 맨하탄이라 불리는 차옌하이(Changhai)와 인큐베이터(IDG Incubator) 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지 투자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 판로 개척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SW 융합 클러스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자부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다문화여성 친정엄마 맺어주기 행사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예물·중식·기념품 제공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15일, 결혼이주여성 10명, 군산여성한중교류 회인 대상10명을 군산시여성단체와, 다문화가정은 군산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추천 받아 군산리츠프라자 호텔에서 11시에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이하 한마음 재단)'의 후원으로 먼 타국에서 시집은 이주여성들에게 친정엄마를 맨토로 맺어주고자 진행된 것.

이번 행사에 이동우 한국지엠 군산지역본부장, 육성현 전곡읍속속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사무장, 나 의균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 박정희 군산시의장, 윤진주 전북사회공헌협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2016년 친정엄마 맺어주기 한 제1기 가족 20명,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원과 다문화가정 가족, 친지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했다.

또한 이번 친정엄마 맺어주기에는 나 의균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이 결연 주례를 주관 하고, 윤진주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진



행을 만났으며, 한국지엠 한마음재단과 호원대학교, 비영리법인 전북자동차산업교류회, 비영리법인 전북사회공헌협회의가 후원했다.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은 행사비 일체와 양말에게 예물, 중식, 기념품을 제공하고, 내년 3월에는 자매결연한 20여명에게 제주 나들이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양말로 맺어준 오은빌리아(23, 캄보디아) 씨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인연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관심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감사 드리고 오늘 맺어주시 친정엄마를 잘 모시고 나의 제2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군산=김관훈 기자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 김장 재료 정기적 후원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은 15일 전주 시 덕진구, 덕진구 사랑의올다리 자원봉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랑의 올다리 봉사단이 펼치고 있는 명절음식 나눔 봉사 및 김장 재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협약했다.

전주점은 지난 10여 년간 덕진구 사랑의올다리 자원봉사단과 인연을 맺고 설, 추석 때마다 차레상에 필요한

명절음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신선한 식자재를 후원해왔다.

또 생필품세트, 한우 등을 지원해 소외된 이웃들이 풍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해마다 진행되는 김장 나눔 봉사 2005년 배추 후원을 시작으로 양념재료를 같이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300여 곳에 보낼 수 있도록 배추 2000포기를 비롯해 500만원 상당의 김장재료를 지원했다. /김민근 기자

3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2조5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은행이 2조1000억원, 특수은행이 1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했으나 순이자마진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43%)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6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순이자마진이 1.66%로 전년동기(1.54%)보다 0.12%포인트 상승한 영향이 컸다.

수수료 이익, 신탁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관매비와 관리비는 5조5000억원으로 일부은행의 명예퇴직 급여 지급 등으로 전년동기(5조1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1조5000억원으로 일부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뉴스1

국·찌개, 간편식 소비 급증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비비고 가정간편식 1위 차지

1~2인 가구 증가로 '혼밥족'이 늘어나면서 한국인이 즐겨먹는 대표 메뉴인 국·탕·찌개의 가정간편식(HMR) 제품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 시장분석 기준 국·탕·찌개(완조리 제품) 시장이 최근 4년간 연평균 20%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크게 성장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7% 늘어난 가운데 올해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2013년 400억원대 초반 수준이던 국·탕·찌개 시장은 2015년 495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727억원 규모로 커지면서 1년 만에 200억원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3분기까지 973억원 규모로 커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제품의 맛과 품질이 향상되고 여러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한층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탕·찌개 시장의 빠른 성장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밥 수준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조리가 간편하고 장시간 보관이 가능한 상온 제품들의 증가 등이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1



국·탕·찌개 시장은 현재 '비비고 가정간편식'을 앞세운 CJ제일제당이 올해 9월 누계 기준 43.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이 시장에 진입해 15% 점유율을 차지한 뒤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급성장하는 모습이다.

이어 오뚜기가 15.9%의 점유율로 뒤를 잇고 있고 아워홈, 하림, 동원F&B 등의 식품업체들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출시된 '비비고 가정간편식'의 누적매출이 800억원(10월 마감 기준)을 돌파했으며 누적 판매개수로 3500만개가 넘었다고 밝혔다. 올해 '비비고 가정간편식' 매출을 800억원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뉴스1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